



양봉협회보

나의 다수확 비결

수원시 이 증 철

지난겨울은 유난히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추워서, 월동식량을 충분히 주지 않았던 분들은 가슴을 졸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우수가 지난 이때 성급한 마음을 가진 양봉인들은 잠시 따뜻한 날을 틈해 벌써 동작 빠르게 축소를 마치고, 화분떡을 넣어 주시고 자랑하시는 것을 보니, 양봉인들의 성급함과 부지런함을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봉우 여러분께서 봄벌을 멋지게 키워, 넘치는 소득을 올리시길 빌며 필자가 오랫동안 경험한 기술을 지면을 통해 옮기고자 하오니 꿀벌을 사랑하는 선후배님들과 특히 초심자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벼농사의 풍작은 모를 잘 키움에 있듯이 꿀벌의 성공도 초봄관리에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일기는 삼한사온과 함께 대륙성 기후이기 때문에 항상 2월20일 전후해서 따뜻하고, 오히려 삼월초에는 꽃샘추위가 길고 봄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여 봄벌 관리하기에 이른 것 같지만 산간지방을 제외하고는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본인생각에도 좋을 듯 합니다.

축소 군세는 1~2매벌로 강하게 밀집시키고 경제관 넘어로 식량 소비 1창을 넣어준 후 보온 개포를 꺾어내린후 개포를 덮습니다. 이때 화분떡은 5일 정도 따뜻한 방에 발효시켜 준비한후 첫 내검과 함께 넣어준 결과 석고병이 봉군 전체로 번져 치료에 어려움이 많았으므로, 해마다 알부민 인공대용 화분을 넣어줍니다. 인공 화분을 배합 할 때도 인체용 소화제 약간에 요구르트도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진드기 박멸을 위해 진디약을 곧바로 한장씩 넣어주고 급수기로 자극사양을 시켜 통 안의 벌들을 퍼지게 합니다. 첫 사양을 시킬 때 설탕 1포를 기준으로 해서 활력산 5병과 후미덜비 10g을 타서 주면 꿀벌들이 활기가 있고 기어다니는 병이 없어 집니다. 사양과 함께 물을 공급할 때는 급수기로 주면 사양기에 빠져 죽지 않고 좋습니다. 봄에는 사양기에 식량을 주면 많이 빠져 죽습니다. 이렇게 한달이 지난 후 봉판이 좋아지고 유봉이 뒹 장벌에 가득하고 여왕벌이 넘어와서 산란을 하게되며경제관을 벌려 가운데로 옮겨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아카시아 전까지 6매로 키웁니다. 마지막 증소는 아카시아 지역 개화가 20일 전에 증소를 마칩니다. 그이후 산란은 첫 채밀과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아카시아 개화 13일을 전해서 수직격왕관을 넣어줍니다. 이때 2매벌을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첫꿀이 잘들어올 때 공소비 3장을 넣어주면 전체 9장소비(벌소비 2매, 공소비 7매)를 가지고 아카시 밀원이 끝날 때까지 채밀을 합니다. 10매 상벌통에 9장 소비로 관리하면 공간이 생기고 6매용

채밀기에 일손도 맞고 작업에 편리합니다. 그리고 첫 채밀하는 날 수직 격왕관을 철거해도 좋습니다. 이때는 7매 소비가 거의 공소비가 된 상태이고 꿀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으로 지난해 봄벌 100군중 60군을 분양하고 나머지 40군으로 경북 선산 지역과 김천, 경기, 안산과 강화 지역을 다니며 4일 이상 간격으로 6회 채밀을 하였으며, 정말로 수직 격왕관을 사용했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또한 채밀이 끝난 후 허약해진 벌들을 다시 4~5매로 축소시켜 많은 사양을 시킨 후 강군으로 회복시켜 40군의 원군으로 경기 화성시 매송면에서 고정으로 230군으로 늘려 월동벌 200군으로 월동을 마쳤습니다. 여름 식량 및 월동 식량을 설탕 300포 이상 줄였고, 진드기 구제는 첫내검시 아카시아 끝난 후 1번, 여름에 1번, 장마철에 1번, 가을에 2번 실시했으며 장마철에 화분떡을 1번 넣어주고, 9월 초순경에 1번 더 넣어주었습니다. 또한 사양시마다 약간의 소금은 꼭 넣어주었습니다.

금년에 이 같은 방법으로 더욱 잘해 보려고 작심하고 있으며 여러 봉우님께서도 더 좋은 사육방법으로 풍작을 이루시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택전화:031)394-3095 H.P:011-9755-5429

강원도 양양군, 속초시 양봉교육 강좌 개최

지난 3월7일 강원도 양양군, 속초시 지역의 신승팔 회원의 주관으로 관내에 양봉인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양군 농협강당에서 처음으로 양봉교육이 개최되었다고 한다.

이날 정해은 회장과 고상인(고려양봉원)원장이 강사로 초빙되어 본 협회소개, 당면과제 봄벌 관리 육성 등에 대해 강의하였다.

특히 신승팔 회원은 교육장에서 13명의 협회 신규회원을 가입시키는 등, 30년 동안 양봉업을 해오면서 평소 타 지역 양봉농가에 비해 농가교육이 낙후된 점을 감안, 못내 아쉬워하던 차 영양군 신동욱 분회장을 경위하여 관내 양봉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주선하였다.

